

## 제 24 시의회 선거구

**Rory I. Lancman** (D, WF)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을 시의회에서 대표하려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로리 랭크맨입니다. 저는 퀸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24 선거구에 있는 큐가든의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서 제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지역 학교에 다닌 후 퀸즈 칼리지와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졸업했습니다. 현재 저는 제 아내 모건 그리고 저희 자녀 셋과 힐크레스트에 삽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지역사회 지도자, 의료서비스 옹호자,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주 하원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퀸즈병원이 매각되는 것을 막는 데 일조했고, 올버니에서 우리를 성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학교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을 살려두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택 소유 비용과 아파트 임대료는 교통, 전기 그리고 음식 비용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용 또한 계속해서 부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 어디에 가든 중산층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시 정책은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저는 중산층의 목소리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뉴욕시 정부 거의 모든 구성원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 감사관, 공익 대변인, 퀸즈 보로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시의원 중 거의 반 정도 또한 새로 선출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 싸울 경험 많고 검증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주 하원에서 6년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운영위원회에서 16년간 봉사하면서 저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 유권자들을 위해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선거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